‘교추협’ 관련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교추협은 ‘조영달, 박선영 후보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1. 최근, 여러 언론매체가 교추협 관련 기사를 내보내면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심각한 오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교추협에서 활동한 7인 위원 중 5인의 연명으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2. 기사의 내용 중 ‘교추협이 조영달 후보를 고소했다.’ ‘곧이어 박선영 후보도 고소한다.’는 내용은 100% 오보입니다. 고소는 교추협에서 활동한 일부 인사가 개별적인 판단 아래 추진한 것입니다. 고소장에도 고소인은 이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으로 나선 이들 외의 5인은 모두 고소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한편, 교추협은 단일후보를 선출했던 지난 3월 30일부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쳤습니다. 3월 30일 이후의 활동은 동의를 거치거나 합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교추협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전체적인 동의나 합의 없이 교추협의 이름을 사용하여 공식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4. 4월 20일자 교추협의 박선영 고발기사는 오보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도한 언론사는 ‘교추협’이라는 기구의 명칭을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5. 이후로 교추협과 관련한 오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후 발생하는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고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20

前 교추협 위원

공교육정상화시민네트워크 최영운
국민희망교육연대 진만성
공교육정상화시민네트워크 이희범
국민희망교육연대 임헌조
원로회의 이경균